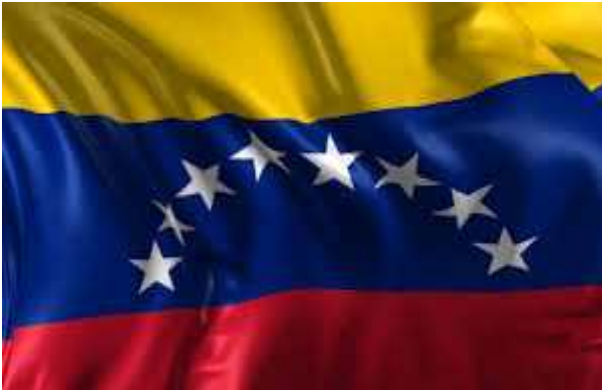




#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와 인도주의 군사개입



\* Resource : National Flag of Venezuela

미국 중남미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월 31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FT)』지는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평가한 논단을 게재하였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2018년 5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니콜라스 마두로 현(現)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의회가 대통령으로 지명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간 정치적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쿠바 그리고 볼리비아와 국내 군부, 법원과 국영 석유기업의 지지를 받는 마두로 대통령은 반미(反美) 성향을 보이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지지를 받는 과이도 국회의장은 친미(親美) 성향을 보이면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친미(親美)-대(對)-반미(反美)』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은 반대파 과이도 국회의장이 미국에 요청한 경제원조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의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중남미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과 중남미 국가들은 중남미에 대한 전통적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준수하면서, 정치적 파국에 빠진 베네수엘라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과 과이도 국회의장에게 간 협상과 차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권 수립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협상을 거부하였고, 마두로 대통령은 서방이 보낸 인도주의 지원 차량을 국경에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전 후고 차베스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반미 정권을 맞게 된 미국이 이러한 사태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인도주의적 군사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작전은 독재정권에 의해 해당국 국민이 탄압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시에 군사 개입을 하여 정권을 교체시키고 정국 안정화를 위한 국가재건(Nation-Building)을 하는 군사조치로 1989년 파나마 사태와 2016년 콜롬비아 내전에 대해 군사적 개입으로 독재정권 교체와 경제지원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그러나 영국 『FT』지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 군사개입 작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행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인도주의 군사개입 작전은 국제법상 논란이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고 있으며, EU와 중남미 국가 간 구성된 “국제교섭그룹(International Coordination Group: ICG)”조차 인도주의 군사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둘째,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과거 중남미 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군부가 반미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 만일 미국이 인도주의 군사개입을 강행하면 유혈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셋째, 제2의 리비아 사태 우려이다. 2011년 미국 등 서방이 리비아 마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 교체를 위해 다국적 인도주의 군사개입 이후, 사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토속 종파 간 분쟁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리비아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유화정책”을 채택하여 베네수엘라를 협상테이블로 유도해 반미 감정을 친미 성향으로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중국에 구사하고 있는 냉·온탕의 강압정책을 베네수엘라에 구사하게 되면, 쿠바, 볼리비아 그리고 니카라과 등 좌파정부 모두가 미국에 등을 돌리게 되어 난민, 마약, 밀수 및 밀입국 등의 비전통적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주에 “콜롬비아에 미군 5,000명” 수기(手記) 파일을 들고 백악관을 나와 언론매체의 관심을 받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적용된 대(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가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작전에 비중을 둘 경우 중남미 정국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출처 : Financial Times, January 31, 2019, p. 4; RCN International Outlook, February 5, 2019; Vice of America, February 7, 2019; GlobalSecurity.org, February 7, 2019.